

七情과 四氣에 대한 비교 연구

최성욱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Comparative Study on Seven Emotions and Four Energies

Sung Wook Choi,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Human health is affected by not only physical conditions but also mental and social well-being. Changes of human emotions show up as gestures, facial expressions and sweating. Human emotions are affected by such automatic nerve system functions as blood pressure, blood circulation speed, heart beats, pupillary reflex, fluid transfusion, muscular contraction and digestive organs, all of which influence the holistic diseases. The Oriental Medicine sees from a perspective of unity of divinity and men that human life activities are united in terms of their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From such a perspective, human Five Organs are linked with Five Mental(五神) and Seven Emotions(七情), while they are affected by each other, influencing the life activiti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ased on Confucianism, Sa-Sang Theory argues that human emo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energy states and therefore, that human diseases and physiological conditions there of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our Energies(四氣). There seems to be some common points between Sa-Sang Theory and the conventional Oriental Medicine in that human emotions affect individuals' health conditions, so there seems to be much room for mutual complementation.

Key words : Five Mental(五神), Seven Emotions(七情), Four Energies(四氣)

서 론

인간의 건강은 육체적인 측면 외에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安寧 여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감정 변화는 몸짓, 표정의 변화, 發汗 등과 같이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며, 感情과 情緒의 발생은 혈압·혈류속도·심장박동·동공반사·수액대사·근육수축·소화관 활동 등 자율신경계 지배하에 있는 心身症의 원인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육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이 하나로 통일된 神形一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적 바탕에서 인체의 五臟은 五神과 연결되고, 또한 七情과도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어 생명현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四象醫學은 儒學에 기본을 두고 性·情의 四象類型的인 四情에 따른 氣의 升降을 통해 체계를 정립하였고¹⁾, 情의 편차에 따른 각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생리·병리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는

道家와 黃老之學를 근거로 하여 자연의 질서를 인간에게 적용하고, 陰陽·五行을 기초이론으로 삼고 있는 기존 한의학과는 서로 다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작용인 情이 육체의 생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는 四象醫學과 內經醫學이 서로 공통된 점이 있으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저자는 七情과 四象醫學의 四氣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비교·고찰하였다.

본 론

1. 七情

한의학에서 情은 神을 藏하는 心에서 주관하며, 神이 만물에 感觸되어 七情이 발생한다고 하여, 心神을 주체로 하는 내부 臟器機能의 외부 환경자극에 대한 반응현상²⁾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精神活動(五神·五志)을 五行·五臟과 연결시키면 木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3/29 · 수정 : 2005/05/03 · 채택 : 2005/05/31

1)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민속학 연구 1호, 1997, p. 167.

2) 이하 內經醫學이라고 간략히 稱함.

3) 金完熙 外, 東醫生理學, 부름인쇄기획, 1993, p. 401.

肝-魂-怒, 火-心-神-喜, 土-脾-意-思, 金-肺-魄-憂, 水-腎-志-恐의 관계가 성립되며, 五神活動은 精神活動에 기본 구조를 이루고, 외부환경의 자극을 받아 情이 발현된다.

한의학에서 七情인 喜·怒·憂·思·悲·恐·驚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총화로서, 五志에 悲·驚을 합한 것인데, 『內經』의 원문에는 七情이란 용어는 없고, 『張馬合註』에 비로소 그 용어를 찾을 수 있으며⁴⁾, 金·元代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⁵⁾. 『中庸』에서는 “喜怒哀樂之, 未發謂之中”이라 하여 인간의 감정을 喜·怒·哀·樂 四者로 개괄하였고, 그 후 중국 철학자들과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대개 喜·怒·哀·樂으로서 七情을 대변하거나 兩者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⁶⁾.

情의 분류는 七情과 六情·十情⁷⁾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內舍된 의미에 큰 차이는 없으며 단지 모두 인간 感情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情이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본연의 性 또는 心, 마음이 움직인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七情으로 통용되고 있다. 情 또는 感情은 외부환경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로부터 대부분이 발생하는데, 생리적 표출을 수반하고 인간 행동의 動機가 되기도 하며, 행동이 행해지면 情이 곧바로 소실하는 급격한 것으로부터 장기간 계속되는 기분이나 情操⁸⁾와 같은 高等感情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感情이 정상적 한도를 넘어서서 나타나는 七情傷은 신체에 五臟의 虛實, 血虛, 氣虛, 精의 損傷, 氣의 循環障礙, 痰飲 등 병적인 요인을 만들어 질병을 야기한다. 七情傷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직접 五臟을 傷하게 하는 것으로 七情이 과격하거나 情志의 자극이 지나치게 오래 되면 臟腑의 생리기능에 영향을 주어 병리변화를 일으키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悲傷肺, 恐傷腎”이라 하여 일정한 情志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臟腑를 傷하게 한다고 하였다. 둘째, 氣機에 영향을 미쳐 氣의 升降機能에 異常을 일으키는데, 七情은 주로 臟腑의 氣機升降에 영향을 미쳐 氣機의 升降協助關係를 문란하게 한다. 『素問·舉痛論』에서는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驚則氣亂, 思則氣結.”이라 했는데, 上은 氣機가 逆上한 것이고, 緩은 氣機가 緩한 것, 늘어났 것이며, 消는 氣機가 消散하거나 감퇴한 것이고, 結은 氣機가 鬱結한 것이다⁹⁾.

이상에서 볼 때 七情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단순하게는 感情의 변화를 일으키나 과도하게 되면 주로 신체 내의 氣機의 升降에 부조화를 일으켜 疾病의 원인이 되며, 심하면 五臟을 직접 傷하게 함을 알 수 있다.

2. 四象醫學에서의 情

四象醫學은 儒敎의 사고에서 출발하여 우주의 질서보다는

인간사회의 관계, 즉 인간의 윤리도덕에 기초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四象類型의인 氣의 升降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醫學이다¹⁰⁾. 기존의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한 內經醫學에서는 각기 五行의 특성으로 五臟機能係를 설정하여 인체구조를 설명하고 臟腑生理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의 四情에 따른 氣의 升降에 따라 臟局의 차이가 발생하고 四物類의인 요약정신으로 四臟·四部·四焦·四海의 臟腑生理를 완성하였다¹¹⁾.

內經醫學에서 陰陽·五行을 기본적인 인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의 四情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다. 또한 內經醫學에서는 七情 중 喜·怒·思·悲·恐을 五臟에 배속하여 五志로 취하였으나,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을 취하여 性과 情, 그리고 氣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¹²⁾.

性情之氣는 喜·怒·哀·樂의 四氣로서 이는 인체의 耳目口와 肺脾肝腎이 天氣와 人事를 행할 때 세상 또는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性情의 표출상태에 따라 氣의 상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喜怒哀樂, 四氣, 升降의 緩速과 특성이 서로 다르며, 분포되어지는 부위 역시 다르게 된다¹³⁾.

四氣를 분석해 보면 唯心의인 면이 있지만 哀는 어떤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느끼는 他己의 슬픔의 감정이라면, 怒는 어떤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느끼는 自己의 분노의 감정이다. 따라서 東武가 언급한 것처럼 哀氣는 중심으로부터 멀리 흩어져(遠散) 두뇌까지 直升하는 것이고, 怒氣는 멀리가지 못하고 胸部에서 뒷살방향으로 퍼져 올라가(橫升) 크게 감싸는 모양이 된다. 喜氣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느껴 편안하고 느긋해진 기쁨의 감정이라면, 樂氣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빠져들어 즐기는 감정이다. 따라서 東武의 설명처럼 喜氣는 중심으로부터 下方으로 완만하고 넓게 퍼져 臍腹으로 放降하는 것이고, 樂氣는 깊이 沈溺하여 直下方 前陰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陷降) 기운이다¹⁴⁾. 氣의 升降은 어느 부위를 기준으로 上升·下降하는 것이 아니고 身體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陽氣化 혹은 陰氣化되며 그 氣의 특성에 따라 四焦의 부위적 친화성에 따라 각각의 부위에 升降하며 움직이게 된다¹⁵⁾. 四氣는 氣의 上升과 下降하는 특성에 따라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는 陽氣로 보고,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하는 陰氣¹⁶⁾로 보았다. 四氣의 특징 중 하나는 陽에 속하는 哀怒之氣는 相成하고 陰에 속하는 喜樂之氣는 相資하여 陽에 속하는 氣는 陽끼리, 陰에 속하는 氣는 陰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룬다. 四氣는 相成·相資 外에 順動과 逆動의 작용으로 신체 내 臟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內經醫學에서 五行의 相生·相克이 臟腑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구병수, 氣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Vol. 5, No. 1, 1994, p. 106.
 5) 송일병·이문재, 사상의학의 사단질정론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Vol. 1, 1980, p. 42.
 6) 池圭鎔·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p. 54.
 7) 上揭書, p. 54.
 8) 上揭書, p. 53.
 9) 金鍾佑·金知赫·黃義完, STRESS의 한의학적 이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Vol. 4, No. 1, 1993, p. 22.

10)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4, No. 1, 1992, p. 5.
 11) 上揭書, p. 177.
 12)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민속학 연구 4호, 1997, p. 176.
 13) 宋一炳·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6, No. 1, 1994, p. 143.
 14) 池圭鎔·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p. 56.
 15) 宋一炳·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6, No. 1, 1994, p. 143.
 1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 則下焦傷 下降之氣過則 上焦傷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에 해당한다¹⁷⁾. 氣의 順動과 逆動에 따라 順動時에는 생리적인 氣의 상태로 작용하고, 逆動時에는 인체가 적응할 한도를 넘어 수용할 수 없게 되어 병리적 상황이 발생한다¹⁸⁾.

3. 氣

동양철학에서 氣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氣의 움직임은 몸과 마음 心理作用과 生理作用의 양쪽에 다 관계하고 있고, 氣라는 단어는 철학·종교·의학·일상생활의 방면에 두루 사용되어 왔다. 『說文解字』에서 “氣는 雲氣이다”라고 해석한 이후로, 氣에 대하여 많은 정의가 있었다. 道家에서는 자연 만물의 존재가 운동하고 변화·생성하고 聚散하는 상태를 氣라 했고, 儒家에서는 인간의 心性을 가지고 氣를 논하였으며, 佛家에서는 제 8識인 心識이 변화하여 드러난 대상이라 하였다¹⁹⁾.

역대로 수많은 氣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氣는 자연만물의 根源 또는 本體이다. 氣는 天地 萬物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둘째, 氣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질료 또는 원소이다. 氣는 일종의 미세한 물질현상으로서 形質을 아직 갖추지 않은 혼돈상태이며 응결되어서야 형상이 있는 사물이 된다. 셋째, 氣는 動態機能을 갖춘 객관실체이다. 氣는 부단히 운동·변화하며, 운동·변화하는 것을 자기 존재의 조건이나 형식으로 삼는다. 넷째, 氣는 우주에 가득 찬 물질개체 또는 매체이다. 다섯째, 氣는 인간 생명이다. 인간은 氣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氣는 인체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新陳代謝를 촉진하며 생명력·면역력을 증강한다²⁰⁾.

본 논문에서는 다섯째에 해당하는 인간생명에 해당하는 氣의 측면만을 논하도록 하였다. 氣는 生의 에너지로써 물질적 측면에 있어서 자율적인 기능으로써 陰陽의 조화와 天地의 舍德一節 道에 의하여 소장하는 하나의 종속적인 표현의 도구로서 명명된 것 같고, 氣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²¹⁾고 보고 있다.

氣는 인체의 여러 생리현상 중에서 情緒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氣를 情으로 보는 한의학의 전통적 사상으로서 感情이란 것이 인간의 환경, 특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精神活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였고²²⁾, 감정과 외부 환경의 변화가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氣의 변화이며 그 원인에 따라 七氣, 또는 九氣로 분류되는데, 이는 精神作用 및 外部環境의 변화 등이 맥관 및 자율신경의 긴장과 이완이라는 현상을 가져옴을 두고 하나의 증후로 보는 것²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 그 精神 자체는 無形·無爲이므로 인지하기 어려우나, 精神作用은 氣의 변화상인 七情으로 나타나며, 七情과 氣의 관계는 인간의 精神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4. 四象醫學에서 心과 內經醫學에서의 心

四象醫學에서도 『周易』의 太極·兩儀·四象·八卦의 개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周易』에서 兩儀를 陰陽으로 四象을 陰陽이 분화하여 나타난 太陽·太陰·少陽·少陰으로, 八卦를 乾·兌·離·震·巽·坎·艮·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周易』과 달리 東武는 太極·兩儀·四象·八卦를 관점의 분화로 보아 一元의 본체는 心이고, 二元의 본체는 心·身이며, 四元的 본체는 事·心·身·物로 설정하였다. 東武의 四元構造는 더 이상 분화되지 않는 실질적 개념인 事·心·身·物로, 이는 우주의 構造적 요소, 발생변화적 요소, 자체조화적 요소, 물상으로서 표상적 요소를 지녀 우주현상·사회현상·인체생리현상 등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²⁴⁾. 東武는 四象의 事·心·身·物을 본체적 요소로 설정하고, 이것을 哲學과 醫學의 근본으로 삼아 모든 현상을 四象을 통해 인식하고자 했다²⁵⁾. 즉, 『周易』에서는 生이라는 관계를 통해 太極이 陰陽으로 陰陽이 四象으로 점차 분화되어 가는 의미라면, 東武는 心에서 心·身이, 心·身에서 事·心·身·物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心, 心·身, 事·心·身·物이 각각 독립적인 인식의 관점으로 보았다²⁶⁾. 事·心·身·物에서 事物은 외부의 事物을 말하는 것이고, 心身은 인간의 마음과 肉體를 형상하여 이룬 것으로, 인간을 心身으로 인식함에 身은 物性으로 萬이 공유한 바이고, 心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心은 身과 상대개념으로 心은 形而上이고 身은 形而下이다²⁷⁾. 心은 身 또는 事·心·身·物과 상대성을 갖고 陰陽의 속성과 같이 분속 또는 통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心은 肉身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無形의 心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肉身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內經醫學에서의 心 개념은 心主血脈의 血肉之心으로서의 기능·정신·사유 활동을 나타내는 無形之心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고 운용하여 주관하는 主宰의 성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心의 身體에 대한 주재성은 四象에서의 太極之心의 성격에 포함되며, 內經醫學에서 無形之心의 心 개념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다만, 心主血脈의 血肉之心은 四象의 肺·脾·肝·腎의 생리기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²⁸⁾. 즉, 內經醫學에서는 心의 개념을 五臟의 하나로 보고, 有形의 心과 無形의 心으로 구분하여 無形의 心은 氣의 현상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四象醫學에서는 心을 肉體活動에 대비되는 精神活動의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²⁹⁾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東武는 無形의 心 현상을 일원적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로 有形의 肉身에 분속하여 精神과 肉身の 생명현상을 일원화한 醫哲學 原理³⁰⁾를 새롭게 확립하였다고 하겠다.

17)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민속학 연구 4호, 1997, p. 175.
 18) 宋一炳·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6, No. 1, 1994, p. 143.
 19) 張立文 外, 氣의 철학, 서울, 예문지, 1993, p. 33.
 20) 上揭書, p. 38.
 21) 구병수, 氣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Vol. 5, No. 1, 1994, p. 103.
 22) 송일병·이문재, 사상의학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Vol. 1, 1980, p. 42.
 23) 김중대, 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1990, p. 32.

24)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민속학 연구 4호, 1997, p. 174.
 25) 上揭書, p. 173.
 26) 上揭書, p. 172.
 27) 上揭書, p. 256.
 28) 上揭書, p. 253.
 29) 金義泰·河智容·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Vol. 8, 1993, p. 253.
 30) 上揭書, p. 257.

고찰

한의학에서 情緒分類 중 하나인 七情은 精神作用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특히 질병발생과의 상관성에 염두를 둔 것이다. 七情은 물리적인 자극환경에 대한 心의 반응내용으로서, 七情은 물리적인 자극환경에 대한 心의 반응내용이라 할 수 있다.

內經醫學에서 七情은 감정의 상태를 분류하여 이름한 것인데, 七情이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상태에서는 五臟을 직접 傷하게 하여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氣의 代謝에 문제를 일으켜 질병의 간접적 원인이 된다.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四情은, 四情에 따른 氣의 움직임에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體質이 정해지며, 그에 따른 특유의 생리·병리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체질 決定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情과 氣의 代謝는 정상적인 생리상태나, 병리상태에서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情은 內經醫學에서는 五神보다 저급한 상태의 精神作用을 의미하며, 四象醫學의 기본인 儒敎에서는 性·情의 관계에서 理를 담은 性보다는 낮은 단계로 性이 발휘하여 나가는 것이 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의학과 儒敎의 情의 개념에 차이는 있으나, 無形의 心 즉 神·마음·精神이 작용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心에 대해서는 心主血脈하는 有形之心에 관하여는 內經醫學에서는 心 자체의 기능으로 보고 있고, 四象醫學에서는 肺·脾·肝·腎 四臟의 기능에서 파악하는 등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마음이라고 하는 無形之心의 작용을 神을 藏하고 精神·思惟活動의 총체로 인식하는 부분은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無形之心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內經醫學은 五神·七情·九氣 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고, 四象醫學은 性情·四情·四氣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 차이점도 氣의 작용이 중요한 핵심이므로 內經醫學과 四象醫學이 확연히 다른 것은 아니다.

결론

한의학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太極·陰陽의 全體性이

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생명현상의 兩面으로 받아들이는 形神一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인간 精神氣能의 총화인 神은 五神으로 나누어지며, 五神의 精神活動은 환경에 반응하여 七情의 변화상으로 나타나고, 과도한 七情은 氣의 代謝에 변화를 일으킨다.

四象醫學에서는 四情으로 각 情에 따른 氣의 升降에 따라 臟局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에 따라 특징적 體質의 생리·병리를 체계화했다. 內經醫學의 七情과 四象醫學의 四情은 모두 無形之心인 인간의 精神機能이 作用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精神作用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七情과 四情은 모두 氣機變化의 원인이 된다. 四象醫學의 四情에 따른 氣의 升降上下하는 作用機轉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內經』의 七情과 구분되는 四情의 機能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나, 形神一體에 입각한 生命現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민속학 연구 4호, 1997.
2. 金完熙 外. 東醫生理學, 부름인쇄기획, 1993.
3. 구병수. 氣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Vol. 5. No. 1. 1994.
4. 송일병, 이문재. 사상의학의 사단철정론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Vol. 1, 1980.
5. 池圭鎔, 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6. 金鍾佑, 金知赫, 黃義完. STRESS의 한의학적 이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Vol. 4. No. 1, 1993.
7.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4. No. 1, 1992.
8. 宋一炳,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6. No. 1, 1994.
9. 張立文 外. 氣의 철학, 서울, 예문지, 1993.
10. 김중대. 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1990.
11.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 8, 1993.